

전북도,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 수립

1~6차 아울러 미래지속발전 가능 산업으로

전북도는 27일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놓았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5대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한 농생명산업 수도는 농업을 1·2·3차산업에서부터 6차산업까지 모두 아우르며 미래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어서 식량안보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산업 확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육성계획은 실현성과 고도화는 물론 물류 인프라를 통한 산업과 시장의 확장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가 제시한 육성계획은 2대 목표 6대 전략 16대 핵심과제를 선 정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농업의 전·후방산업 연계로 '혁신 성장'을 선도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

이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원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충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에 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인삼하

독은 4,700만원으로 전국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첨단기술과 관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 외연(가치)을 확장하고,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을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 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산업의 입지를 극대화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이같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원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충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에 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인삼하

독은 4,700만원으로 전국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첨단기술과 관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 외연(가치)을 확장하고,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을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 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산업의 입지를 극대화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이것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원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충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에 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인삼하

독은 4,700만원으로 전국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첨단기술과 관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 외연(가치)을 확장하고,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을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 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산업의 입지를 극대화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이것은 목표의 실현을 위한 6대 전략은 △창원농 창업 1번지 조성, △수요충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생명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위기에 응 지속가능 농업구조 전환, △인삼하

독은 4,700만원으로 전국 6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새로운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확장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첨단기술과 관련산업의 융합을 통해 생명산업으로서 외연(가치)을 확장하고,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부가 농생명을 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전북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종자, 미생물, 식품산업, 동물용의약품 등 농생명산업의 입지를 극대화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은 우리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

실현성·고도화로 식량안보·성장동력산업 확보 '1석2조' 새만큼 등 물류인프라 통해 산업·시장 확장성에 초점 뒤

한 농업으로 '농민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으로 약속한다.

도는 이를 통해 식품기업 매출액 7조원 시대를 열고 농가소득 6천만원 대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이다.

고 농업하는 경영인정 강화, △누구나 살고싶은 활력농촌 조성이다.

도가 이처럼 고부가 농생명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북이 농업생명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농가소

민중안호영 의원, 완주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지난 25일 완주 이서면과 상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 주 앞서 봉동 등 지서 열린 의정보고회와 마찬가지로 유희태 완주군수와 권요안·유수봉 도의원 서남용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지역위원장 주요 당직자와 당원 등 완주군민 300여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완주=이종복 기자



8월 세계잼베리 성공 개최 전북도, 원-포인트 추정 편성

작년 국회단계 국비 확보에 더해 도비 추가 지원

전북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23 새만큼 세계스카우트잼베리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2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와 세계스카우트잼베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대회 개최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에 공동으로 노력해왔으며, 금번 추경은 작년 국회 단계에서 확보한 국비 45억원에 도비 98억원을 더해 총 14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것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 필요한 안전분야 보강, 개·폐역시 공연 이벤트 등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과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위전 변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다.

전북도는 조직위의 긴급 지원요구에 따라 원-포인트 추경편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각종 프로그램 강화, 아영장 보강 등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세계 각국의 4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전북을 찾는다. 아시아 유럽 북미,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온 청소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함께 자고 먹고, 전북의 곳곳을 누비며 문화를 체험하는 가슴 뛰는 행사가 전북의 미래가 될 새만큼에서 개최된다."며, "성공적인 대회 개최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민간교류를 통해 공공외교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이 합심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

오를 밝혔다.

또한, "국주영은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회에서도 대회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 통과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7일 열리는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나인권 농산유통경제지원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에 '신동진벼'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제한 계획 철회하라"

도의회, 정부에 촉구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신동진벼를 공공비축미 제한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북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과 보급종 중단에 신동진벼를 포함 시킨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나인권 농산유통경제지원위원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9일 쌀 적정 생산 및 품질 고도화를 이유로 2024년부터 신동진과 새일미 두 품종을 추가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2025년부터

정부 보급종 공급을 완전 중단키로 했다

이에 의원들은 "사전에 농민들과 어떤 논의 과정도 없이 단순히 다수확 품종을 매입 품종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전체 쌀 생산량을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은 당혹감을 넘어 분개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신동진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지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품종이자 그 우수성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전라북도는 2022년 기준 전체 벼 재배면적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의 주력 쌀 품종을 하위아침에 비꾸

겠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신동진벼의 브랜드 가치와 시간, 노력, 투입된 예산을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나인권 위원장 등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매입 품종을 변경한다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농가에 반영될 것이 분명하므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품종을 단계적으로 출애가야 한다"라며 "최소한 현장에 있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택하여 생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향후 임시회에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

4·5 전주를 재선거

"삼천, 스마트 헬스케어 시범 지정토록"

임정엽 예비후보

임정엽 전주시를 국회의원의 예비후보가 전주 중심지를 관통하는 삼천을 건강·레저시설이 집적화된 명문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고품질 스마트 헬스케어 국가 시범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2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 예비후보는 "삼천은 삼천동, 효자동 서신동 등 전주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시하천이자 귀중한 건강·여가·관광자원"이라며,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수변공간 디자인, 이른바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행복감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토대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삼천을 중심으로 건강·레저·복지시설을 집적화하고, 필요시설을 보강해 삼천 일대를 명품으로 디자인하는 작업이다. 싱가포르 다우터슨 코어, 일본 동경의 '리버사이드'의 강점을 벤치마킹하고, 국내에서는 울산 태화강 부산 온천천, 증평군 삼기천 서울 한강의 강점만을 골라 전주에 가장 적합하도록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복지·육아·교육



시설이 수변공원에 집적화한다.

특히 삼천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시, 3자 협약을 통해 '고령층 스마트 헬스케어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어르신에게 '헬스 수당'을 지급해 운동을 많이 하도록 동기부여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국가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놀리는 하천부지에는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 구장을 확대 조성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 가족 캠핑장 등이 조성된다. 수변공원 도로에 인접한 경사면에는 야생화를 심어 경관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삼천 수변공원에 화장실, 한평가 등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해 탐방객 편의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만들어 줄 계획이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하천법에 따라 삼천 역사 구조물 철거가 까다롭긴 하지만, 물 흐름은 원활하게 유지되며 구조물 높이와 하천 경사면 이용도를 최적의 상태로 설계해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특별단속기간 지정·운영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를 위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현재 조합장선거 관련해 도내 위법 행위 조치건수는 총 19건(고발15건, 수사외의 2건, 경고 11건)이다

이 중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관련 조치건수는 9건으로 전체 조치건수의 47%, 전체 고발건수의 88%에 달하고 있어 특별단속 이유를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단속기간 중 집중관리조합을 순회해 후보자 및 핵심측근에 대한 집중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순회활동 강화로 현장 대응력을 높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선관위는 검찰·경찰 등 단속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도 단속강화를 더할 것이다

/김영태 기자

조합장선거 선거인 20만명·투표소 206곳 확정

전북선관위, 선거인 수 능형·산림조합·산림조합 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6곳이 확정됐다.

이에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선거인 20만1,552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206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20만1,552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날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 수는 지난 28일 기준 총 20만1,552명으로 확인됐으며, 조합별로는 능형 선거인수가 16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산림조합 2만4,000명, 수협 1만7,000명 순으로 파악되고 성별로는 남성 13만3,495명(66.2%), 여성 6만7,843명(33.7%), 법인 214개(0.1%)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선거인은 투표소 206곳 중 자신의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구·시·군 지역내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선거인은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 특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격리 중인 선거인은 선거일 당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진안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승진임용장 수여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가 27일 지방사무관 승진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의 주인공은 김갑기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 1월 2일자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보 후, 6주간 사무관교육을 수료함에 따라 정식으로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승진해 임용장을 전달하게 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 의정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규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사무관 승진임용식을 진행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속공무원이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지난해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맞춰 직원 배치 법규 정비와 인사위원회 구성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 및 인력재배치 등 내실을 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의회,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예정부지 찾아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지난 24일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 권요안 도의원 등이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해당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 군비약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공모에 선정되었으나, 이후 LH와 국토부 협의에서 사업비 분담률이 증가해 추진이 멈춰져 있는 실정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제8대 완주군의회부터 해당사업에 대해 서둘러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으며, 건설재비용의 증가 등의 분담률이 지속으로 상승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용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꼭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사업비의 과다 책정으로 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LH와 국토부 협의 후 제시한 97억원의 분담금을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서 의장은 "본 사업을 LH를 통해 추진하지 않고, 전북개발공사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조정해 '완주 고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함께 자리한 김규성 의원도 "해당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인구 유입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완주=이종복 기자